세라믹기판 시장 한·일 쟁탈전

92년 77억원 시장놓고 동양화학 M/S 30% 확보 계획

92년 77억원의 세라믹기판 시장을 놓고, 국내 생산업체와 해외업체의 시장쟁탈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91년 세라믹기판 전체시장은 70억원으로 동양화학 14억원(20%), 교세라 28억원(40%), 닛고 13억3000만원(19%), 나루미 11억2000만원(16%), 메이와·Coors 등이 3억5000만원(5%)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최근 수요업체들이 국산제품을 선호, 국내 공급업체인 동양화학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는 해외업체들이 소량물량에 대해 오퍼를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려, 대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재고 및 부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, 동양화학은 올해 판매 신장율을 10%선으로 잡고 시장점유율 30%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.

세라믹기판은 열·온도·습도에 강하고 고집적화를 실현시켜, PCB기판을 대체한 HIC기판에 이용됨은 물론 각종 IC 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.

91년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, HIC 38억6000만원(55.1%), Focus Pack 13억3000만원(19%), Volume저항기 5억8000만원(8.3%), Chip저항기 11억원(15.7%), Oscillator 1억3000만원(2.9%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중 Chip저항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, 동양화학이 92년 하반기 장비를 수입·생산할 예정으로 있어 조만간 국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5/1>